

지역 매 아리

부안군의회, 제295회 임시회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부안 군의회 제 295회 임시회가 10일부터 28일까지 17일 간의 일정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주요 사업 현황 방문하고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사업 현황 방문을 통해 군정 주요 사업 현장의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22일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그간 막혀있던 군정 여러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평가, 대안 제시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모든 역할을 쏟을 방침이다.

이한수 의장은 "이번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통해 군민의 소리가 전달되고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대안을 찾아가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28일 군정에 관한 보충 질문 답변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보건소, 내일부터

재가암 자조모임 운영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 이하 보건소)는 오는 12일부터 재가암환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힐링교실 자조모임을 갖는다.

재가암 자조모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투병의욕을 고취하고 재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사업으로 서로간의 든든한 지지와 용기를 주어 희망을 나누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2시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열리는 재가암 자조모임은 재가암 환자들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암환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증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에서는 정읍시내 재가암 환자 및 가족을 포함하여 30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영양교실, 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미술치료, 원예치료, 아로마테라피) 등을 병행해 진행되며 10월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5회 실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재가암 환자 자조모임을 통하여 암 극복 사례 및 치료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암을 이겨내려는 기회로 삼아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성공개최 기원 염원 '활활'

고창군,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성화 봉송

강화 마니산과 익산미륵사에서 지난 8일 개최된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화가 10일 남원시 광한투와 순창군을 거쳐 고창군에 무사히 도착했다.

고창군은 이날 군청 광장에서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군의회 의장 등 주요내빈과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염원을 담아 '성화봉송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환영 행사를 마친 성화는 고창군민

을 대표하여 선발된 봉송주자 30명이 고창군청 광장을 출발해 고창백제약국과 버스터미널 입구를 경유하여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맞은편 제작소 교차로 앞까지 길거리 응원을 나온 군민들로부터 뜨거운 응원과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총 1.1km 구간을 봉송했다.

제90회 전국체육대회는 내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주경기장인 익산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전라북도내 47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5개

간 32개 경기장에서 개최하게 된다.

한편 고창군에서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종목으로 공설운동장에서는 유도종목이 개최되고,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고창군립체육관에서 배구경기를 개최하게 된다.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유기상 군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찾은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를 환영하며, 6만여 군민들의 뜨거운 염원을 담아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한다"며 "모든 경기가 안전한 가운데 아무 불편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수산자원공, 주꾸미 서식장 조성 '맞손'

고창군(군수 유기상)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사장 신현석)이 '고창군 주꾸미 서식장 조성'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양 기관은 남획과 자연환경 변화로 감소하고 있는 주꾸미 개체량을 증가시켜 칠산 앞 바다의 옛 명성을 되찾고 어선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시키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고창군 주꾸미 서식장 조성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한빛원전 온배수 영향 지원금 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송대명(수중참조) 일원에 인공어초 및 돌방태 투석사업과 조성된 어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게 된다.

고창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비 50억원의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산란된 주꾸미 유생을 위한 서식장 조성 후 현재 자원량 보다 약4배 이상 증강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협약의 수탁자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연안바다목장과 연계한 주꾸미 서식장 조성사업을 통하여 고창군 수산자원의 회복과 어려워진 어업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년기 건강·삶의 질 향상하도록 노력 할 것"

부안군보건소, 고혈압 당뇨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 보건소는 고혈압, 당뇨 자조 프로그램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만성질환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월·수·주 2회 운영한다.

고혈압·당뇨병은 우리 나라에서 단일질환으로는 사망률과 장애율 모두 1위에 해당하는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인구 고령화, 생활습관 변화로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군 보건소 자조모임은 질병의 올바른 이해와 관리 방법을 습득하고 적절한 자가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자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체질량 지수, 일상생활형태 등 기초검사를 하고 질병 교육과 합병증 예방, 생활습관, 식이 실습, 치매교육,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



부안군 보건소가 고혈압, 당뇨 자조 프로그램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6주간 만성질환 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월·수·주 2회 운영한다.

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안군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 자조 모임을 지속적으로 할

병증을 예방해 노년기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촉·회의 가져

정읍시는 민선7기 출범 후 처음으로 10일 국제화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인 정읍시장을 공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다"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좀 더 많은 환자들에게 암을 이겨내려는 기회로 삼아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협의·조정 할 계획이다.

그간 시는 2000년 중국 강소성 서주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와 우호결연을 맺었다. 이에 서주시에서 개최하는 한문화관광제·체육교류·국제미술교류전에 참여하여 우호를 다졌다. 나리타시와는 중고등학교 홈스테이를 26회 추진하고 큰북 축제 등에 공연단을 파견했다. 또한

시는 2016년에는 리투아니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여 정읍공연단을 파견하는 등 우호증진 상생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정읍시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도모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 확대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또한, 2019년 국제교류사업에는 관광 축제중심의 교류가 아닌 민간 중심의 문화·관광·경제 등 더 폭넓은 분야에 대해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모두와 하나 되어 '행복한 정읍' 완성할 것"

유진섭 시장, 취임 100일 맞아... 성과·비전 제시

"철단산업과 토탈관광, 예코축산물 기본 축으로 삼아 정읍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0일 민선 7기 유진섭 정읍시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와 시장 운영 방향,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먼저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기반으로 숨 가쁘게 100일을 달려왔으며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길지 않은 시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고 희망 정읍의 밑그림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정읍 발전의 핵심 키워드(key word)를 '철단산업'과 '토탈관광', '예코축산물'로 정하고 희망찬 정읍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공사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재해 위험지구와 경로당 어르신, 기업체 관계자 등 각종 민생 현장에서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방문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뛰었고, 시민들의 삶을 보다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가려움을 긁어주기 위해 한 발 더 뛰는 소용행정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각종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공기제업인형, 422억원), 입암 등 4개 지구 중심지 활성화사업(90억원),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4억8,000천만원) 선정이 결실을 맺었다.

신정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에도 성공했다. 유 시장의 수시 기업체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수렴 등의 적극적인 친 기업 활동 등에 힘입은 성과다. 현재 분양률은 80.0%, 연내 100% 분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단계 국가산업단지조 지정받아 추진할 계획인 2단계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인허가지원 원스톱시스템 구축, 처리상황 실시간 SMS 통보 등의 맞춤형 행정과 주요 관광지 등 공유 공간 중심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한 정보이용 격차 해소 시책도 호응을 얻었다. 단풍철 불법 행락질서 교정 노력도 돋보인다. 유 시장은 단풍명소 내장산의 명성 추려의 근본 원인인 5대 분야(비까지 요금, 택시 호객 행위, 불법 노점상 행위, 각설이 고성방가와 불법 농특산물 판매) 불법행위는 올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향후 시장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밝힌 유 시장은 앞으로의 시장운영 방향과 청사진도 제시했다. 5개 분야 87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했고, 국비 등 모두 1조 7,857억원을 재원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시장운영 방향은 ▲철단산업 육성 통한 일자리 창출과 도심 활력 찾기 ▲찾고 싶은 감동 문화관광도시 ▲스마트한 농·생명도시 ▲함께하는 교육복지 도시 ▲품격 있는 안전행복도시 5개 분야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첨단과학 국가산업단지조 토탈랜드 조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관광활성화 인프라 개선,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수준 높은 교육복지 실현 시책, 생활밀착형 안전SOC 기반 구축 등을 꼽았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gift set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prices for different gift sets, such as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